

제주연구원
**중국 하이난성 지역발전전략 선진사례 조사
공무출장 결과 보고서**

2023. 12.

목 차

I. 출장개요	1
1. 출장 목적	1
2. 출장 지역	1
3. 출장단	1
4. 출장 일정	2
5. 방문지역 개황	2
II. 출장내용	3
1. 장동신구디지털창조밸리(江东新区数字创意谷)	3
2. 중국개혁발전연구원(中国(海南)改革发展研究院)	9
3. 국가과학기술이전센터(国家科学技术转移中心)	14
4. 하이난성 역사기록박물관(海南省史志馆)	19
5. 하이커우 분화구 지질공원	21
6. 하이난성박물관	22
III. 시사점	23
1. 산업단지간 협력을 통한 기업 공동 유치 모색	23
2. 국제 협력 강화로 신산업 및 제도 개선 추진	23
3. 기술 협력 및 사업 다각화 모색	25

I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 ☐ 중국 하이난은 국가급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혁신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하이난성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섬지역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의 거점이자 창구로, 국제적인 하이난의 역량과 제도혁신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함(2023년 상반기, 중국 성시별 경제성장률 8.6%로 전국 2위 실현)
- ☐ 중국 하이난성 지역발전전략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선진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하이난성 지역발전전략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중국 중앙정부와 하이난 간의 관계 설정(협력체계 및 추진 방향 등)
 - 하이난자유무역항 제도적 추진 체계(법, 제도 등)
 - 하이난자유무역항 법적 지위 및 추진 방향
 - 하이난 친환경, 비즈니스, 에너지, 기업지원, 노동, 농업 등 정책 추진 현황
 - 하이난의 기타 주요 정책 현황 및 협력 방안 등
- ☐ 하이난자유무역항 사례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 정책 방안 모색
- ☐ 하이난자유무역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간 정책 협력 방안 모색

2 출장 지역

- ☐ 중국 하이난(海南)성

3 출장단

- ☐ 총 10명: 제주연구원 연구직
 - ①고태호 선임연구위원, ②김현철 연구위원, ③안경아 연구위원,
 - ④좌민석 부연구위원, ⑤강영준 부연구위원, ⑥조남운 부연구위원,
 - ⑦오진호 부연구위원, ⑧이순국 부연구위원, ⑨강연실 부연구위원,
 - ⑩이중화 부연구위원

4 출장 일정

일 자	방문국	주요일정
11.13.(월)	한국 중국	- 한국 제주 출발(13:50) → 중국 상하이(푸둥) 도착(14:20) - 중국 상하이(푸둥) 출발(21:15) → 하이난(하이커우) 도착(00:20)
11.14.(화)	중국	- 장동신구디지털창조밸리(江东新区数字创意谷) (10:00~12:00) - 중국개혁발전연구원(中国改革发展研究院) (14:00~16:30)
11.15.(수)	중국	- 국가과학기술이전센터(国家科学技术转移中心) (10:00~12:00) - 하이난성 역사기록박물관(海南省史志馆) (14:00~17:00)
11.16.(목)	중국	- 하이커우 분화구 지질공원(海口火山口地质公园) (10:00~12:00) - 하이난성 박물관(海南省博物馆) (14:00~17:00)
11.17.(목)	중국	중국 하이난(하이커우) 출발(20:35) → 중국 상하이(홍야오) 도착(24:20)
11.18.(금)	중국 한국	- 중국 상하이(푸둥) 출발 09:15 → 한국 제주 도착(12:50) - 회향: 기상악화
11.19.(토)	중국 한국	중국 상하이(푸둥) 출발 09:15 → 한국 제주 도착(12:50)

5 방문지역 개황

☐  중화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방문 : 하이난성
- 인구 : 약 1,027만명(2022년 기준)
- 면적 : 3만 5,354km² (제주도의 1.91배)
- GDP : 6,818.2억 위안
- 물가상승률 : 0.3%
-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 도시: 4만 118위안
 - 향촌: 1만 9,117위안
- 총 교역액(증감률) : 2,009.5억 위안(9.2%)
 - 수출: 722.6억 위안(120.7%), 수입 1,286억 위안(12.8%), 무역수지: +564.3억 위안

출처 : 두산백과

II 출장내용

1 장둥신구디지털창조밸리(江东新区数字创意谷)

□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10:00~12:00
- 장소 : 海口江东湾数字创意谷
- 참석자 :
 - 제주연구원(10명): 고태호 선임연구위원, 김현철/안경아/좌민석 연구위원, 이중화/이순국/강영준/조남운/오진호/강연실 부연구위원
 - 장둥신구디지털창조밸리(3인):
张东风(江东湾数字创意谷运营公司总裁), 金立仁(江东湾数字创意谷运营公司副总经理), 王文鹏(江东湾数字创意谷运营公司产业运营部长)

□ 주요 연수 내용

- (장둥신구, 江东新区) 하이난자유무역항 11개 중점단지 중 하나로 2018년 6월 장둥신구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하이난다오(海南島) 해협 및 하이커우 공항이 인접해 있어 하이난 물류의 중심이자 제조업·서비스업 중심, 우수인재의 집결지로 육성시키고자 다수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 및 개발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를 토대로, 디지털 경제, 서비스 무역, 교육 및 훈련, 금융 및 기타 관련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장둥신구의 총 부지면적은 약 298km²로, 목적에 따라 다수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어 조성되며, 목적에 맞는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중임
 - ☞ 비즈니스 중심단지(Ecological CBD)는 해안지역에 위치하며, 외자기업 및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
 - ☞ 임공산업단지(Airport Economic Zone)는 하이커우 공항과 연계하여 공항이라는 입지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관련 산업(항공물류, 항공수리 등)의 집적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 ☞ 이외에 다양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음
- (디지털창조밸리) 하이난자유무역항과 관련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 중이며,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에 따라 정부 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 중임

- 디지털창조밸리는 주거, 상업, 호텔(컨벤션) 사업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거사업 구역) 1개 민영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해외 고급인재나 교수, 투자자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음

- 분양이 저조할 경우 임대 형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80% 수준임

- 중국은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법에 의해 이민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특정기간(4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됨

☞ (상업 구역) 오피스 빌딩이 집적된 비즈니스 구역으로, 구역 내 건물 1층은 동남아시아, 이탈리아 등의 브랜드가 입점하고, 2층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오피스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구상함

- (지리적 이점)동남아시아 투자를 고려하는 중국기업의 대표 사무처, (면세 혜택)외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 사무처로 활용 가능

☞ (호텔(컨벤션)사업 구역) 호텔이 입지해 있어 여행 및 숙박, 회의 및 행사 등이 가능함

- 현재 하이난에서 유치한 60여개의 글로벌 기업(세계 500개 기업에 포함되는 중국기업) 중 38개 기업이 장둥신구(江东新区) 내 CBD에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 중임

☞ 주요 업종은 에너지(석유, 전력, 신재생에너지), 기초설비, 금융, ICT 포털서비스 등

☞ 하이난은 현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비즈니스(국제무역), 관광, 금융 등의 서비스 무역을 추진하고 있어 전통적인 제조업과 관련한 산업들은 적은 편임

- 산업 이외에도 해외 인재 유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현재 싱가포르 화교나 기타 국가의 인재가 유입되어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거사업 구역 내 위치한 전랑관(공간 조감도 전시 및 안내 등)은 3~5년 후 예술문화 중심 공간으로 변경 예정

○ (질의응답)

- **[항만산업]** 하이난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허브 중심지로서, 항만산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개 항구를 1개 회사(원양해운그룹, 중앙국유 해운회사)가 운영·관리 중임. 단순히 항만산업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및 국제무역도 연계(항만+제조업, 항만+국제무역)하여 발전시켜 나가려고 함. 코로나 시기에 하이난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물류를 보내는 허브지역으로 역할이 조정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항공운송]** 해상운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항공운송 비중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임. 하이난 유치기업에 대한 혜택(면세 등)과 하이난의 항공운송 수송 능력을 연계하여 유치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음
- **[수산업]** 악어(약 11만 마리), 방시에(게), 새우 등의 양식이 많고,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육상양식이 주임. 최근 육상양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심화됨에 따라 바다목장 형성을 통해 양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다목장, 심해 양식을 관광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하이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임
- **[제조업]** 하이난의 제조업 비중은 낮은 수준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술 제조업 육성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제조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중임
 - ☞ 하이난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 육성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여 첨단제조업 발전을 적극 추진 중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별 중점산업을 설정하여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
 - 양푸경제개발구는 에너지·화학산업 중심지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제조업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 중임
- **[기업 유치·지원정책(인센티브 등)]** 하이난자유무역항은 각 산업의 정책과 연계되서 각 산업별로 자유무역항 정책을 추진 중임. 즉, 항공, 운송, 물류, 해양수산 등 자유무역항 정책과 연계해서 세제 혜택 등을 추진 중임.
 - ☞ 하이난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중국 내륙으로 판매하는 경우, 하이난에서 가공된 상품의 부가가치가 30% 이상일 경우 관세가 면제됨
 - ☞ 기업에 대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ex. 한 사람 또는 부서에서 가능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설계하여 제공)함
- **[해외 인재 유입 방안]** 자유무역항 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중이며, 그 중 부동산 관련 기업 및 유치 기업이 직접 해외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노력함. 기본적으로 해외 인재 유입은 기업이 담당하고, 하이난성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해외 인재가 유입되기 용이한 환경을 구축함

☞ 기업이 해외 인재를 유치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하이난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시스템이 있어 기업이 주도해서 해외 인재를 유입하고 있는 상황임

☞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개인 소득세 15% 적용(중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국에서 유일하게 해외 자격증 인정을 통해 해당 분야 사업 추진 가능(ex.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가진 해외 인재가 하이난에서 관련 사업 추진 가능) 등

- **[현지 인력 고용]** 현지 인력 채용 시 채용기업에 이자금리 인하, 사회적 보험 기능 지원 등 경영비용 상쇄 정책을 추진 중임

☞ 지원: 학위 취득 후 내륙에서 하이난성으로 이주 시, 학위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세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외인력도 동일하게 적용)함

- **[우주산업]** 위성관련 사업 등 우주산업은 원창위성발사장에서 일괄 추진 중임

- **[폐기물]** 폐기물 처리방식은 크게 2가지(소각, 매립)로 구분되며, 최근 하이난 경제발전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재가공해서 다시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기타]**

☞ ‘23년 상반기 하이난성의 경제성장률은 8.6%로, 상하이(9.7%)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18.4월~’ 22.3월)간 후커우(호적)를 취득해 정착한 인제는 약 21만명에 달함

- 이는 수입 무관세, 세금 감면, 외자기업 유치, 해외인재 유입 지원 등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됨

☞ (농업) 약간 특수한 상황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은 많은 부분이 면세에 해당함

☞ (교육) 최근 하이난에 독일의 빌레펠트 응용과학대학의 캠퍼스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중국 본토에서 외국 자본으로 독자적 운영이 가능한 최초의 외국대학임

☞ (임금수준) 하이난의 임금수준은 중국의 전국 평균수준을 상회(해외 인재 유입 영향)하나, 최저임금은 하위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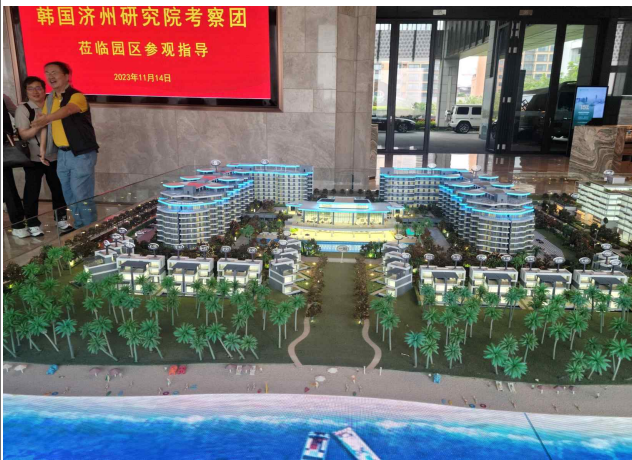
〈장동신구(江东新区)〉



〈디지털창조밸리 전람관〉



〈주거사업 구역〉



〈상업 구역〉



〈컨벤션(호텔) 사업 구역〉



〈외부 경관〉



〈회의 모습〉



2 중국개혁발전연구원(中国(海南)改革发展研究院)

□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14:30~16:30

○ 장소 : 중국개혁발전연구원 CIRD Library

○ 참석자 :

- 제주연구원(10명): 고태호 선임연구위원, 김현철/안경아/좌민석 연구위원, 이중화/이순국/강영준/조남운/오진호/강연실 부연구위원
- 중국개혁발전연구원(4명): Kuang Xianming(Vice President/Director of Institute for RCEP Studies), Guo Wengin(Director of Institute for Hainan Free Trade Port studies), Miao Qiqi(Assistant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Hainan Free Trade Port studies), Song Qiong(Assistant Research Fellow,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주요 연수 내용

○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중국개혁발전연구원(이하, 중개원)은 1991년 설립되었으며, 중국의 개혁발전 정책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개혁연구, 국제협력, 교육·훈련, 정보 출판 등 관련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타결과 함께 하이난자유무역항 추진으로, 중개원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임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간의 무역 룰을 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 하이난자유무역항은 고효율의 대외개방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중개원에서는 동남아시아,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관련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행정 및 사법 등과 관련한 연구를 추진 중임

☞ RCEP의 대외개방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위직 및 실무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추진 중임

○ (질의응답)

-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하이난자유무역항 추진의 차이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하이난에 자유무역항이라는 기능을 부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이하, 자유무역항법)’ 제정을 통해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힘을 실어준 케이스로, 중국 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섬 전체가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됨

☞ 자유무역항법은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법률은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정권의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측면이 있음

- 하이난자유무역항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국가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어 기본적인 구상과 발전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하이난성이 일치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음

- 제주는 정권 변동 및 권한 이양 등에 따라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한 경향이 있음

☞ 현재 자유무역항법의 각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관련 법률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하이난자유무역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도전 과제인 상황임

- [기업 유치] 하이난으로 정보와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법질서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 중임

☞ 지원: 기업 소득세 및 개인 소득세 15% 적용

- 기업 소득세는 중국 본토(25%), 홍콩(16.5%), 싱가포르(17%) 등에 비해 소득세율이 낮음
- 개인 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3%, 10%, 15%의 누진세 방식으로, 중국 본토(45%), 홍콩(17%), 싱가포르(22%) 등에 비해 소득세율이 낮음

☞ 비즈니스 환경 개선: 하이난성 정부는 상단에서 하위 조직까지 일련의 사업들이 다 평가될 수 있도록 사업 평가체계가 굉장히 구체적임.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즈니스환경건설청(제주의 경우, 실국에 해당)을 설립하였으며, 해당 조직을 통해 자유무역항 발전과 관련하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

- 비즈니스환경건설청은 비즈니스환경건설사업을 주관하는 하이난성 정부의 핵심 부문으로, 비즈니스 환경, 정부서비스, 데이터 공우, 사회신용시스템 건설 등을 추진함
- 비즈니스환경건설청은 ▲비즈니스 환경 설계(Top-level design) 강화, ▲디지털화 개혁의 시범 선도, ▲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 및 서비스 개선)’ 개혁 추진, ▲사회신용체계 기반 강화, ▲전방위적 기업서비스 체계 마련, ▲비즈니스 환경 문제 처리 추적 및 감독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함
- ☞ 법질서 강화: 법률(자유무역항법)을 통해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
- [해양산업] 해양과 관련하여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고민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3가지 활동을 계획 중임
 - ☞ 블루 이코노미 협력 양성반(인재 교육) 추진
 - RCEP 체계하에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 내 전문가와 소통 및 교육 기회 마련
 - 참여비용은 중개원에서 지불 예정이며, ‘24.1월에 3기 양성반 추진 계획 중(매년 추진)
 - ☞ 청년 영리더 포럼 추진(‘24.1월 오프라인 행사 추진 예정)
 - ☞ 블루 이코노미 경제협력 포럼 개최 예정이나, 세부일정은 미확정임
- [식품산업 육성] 가공된 상품의 부가가치가 30% 이상일 경우 적용받는 관세 면제 혜택은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상황임. 현재 식품산업 기업 유치 실적은 없지만, 하이난을 해산물 등을 가공 육성하려는 전진기지로서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동남아시아 국가가 중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하이난을 통해 가공한 상품을 중국 내륙으로 수출하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제조업 육성] 원자재나 주 내수시장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하이난에서 제조업은 주요 핵심산업이 아님. 다만, 향후 첨단과학기술 측면으로 제조업을 발전시키려 노력 중임
 - ☞ 인근에 위치한 광둥성의 제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지역과 연계하여 하이난의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정책 등을 제안하는 부분도 검토 중임
 - ☞ 하이난은 지리적 이점 외에도 자유무역항 추진에 따른 정책 및 체제 측면

에서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 첨단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자유무역항 추진에 따른 체감효과]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세수 혜택 등으로 하이난성의 경제발전 및 고급인재 유치에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기업) 하이난자유무역항의 경우, 기업 소득세를 최고 15%(일반기업 25%)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1천여개 기업이 세수 혜택을 받음

☞ (개인) 많은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개인 소득세를 최고 15%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1.3천여명이 세수 혜택을 받음

- [기타]

☞ 중개원은 특정 산업에 대한 연구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등과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세부적인 산업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하이난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나 개선방안, 신규 정책 발굴 및 건의 등에 중점을 둠

☞ RCEP 관련하여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중임

☞ 섬 경제라는 공통 특성이 있어 중개원과 제주연구원이 개방과 블루 이코노미 관련하여 심도 있는 상시 논의체계 구축이 필요함

☞ (우주산업) 자유무역항에서 추진하는 기업 우대정책이 우주산업 관련 기업에도 통용되어 지원됨

☞ 하이난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중국 내륙으로 판매하는 경우, 하이난에서 가공된 상품의 부가가치가 30% 이상일 경우 관세가 면제됨

〈중개원 건물 내부〉



〈중개원 전시관 관람〉



〈중개원 전시관 관람〉



〈회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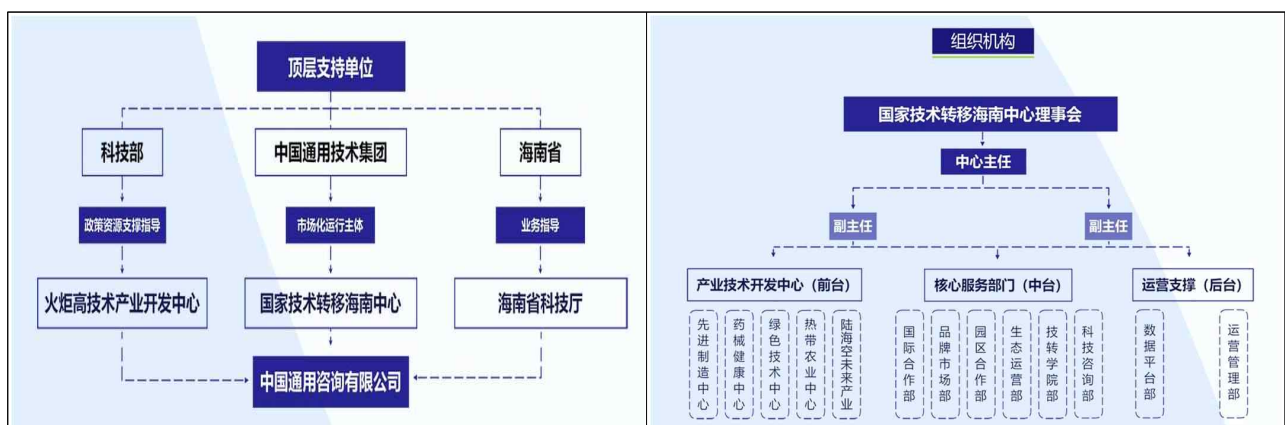
3 국가과학기술이전센터(国家科学技术转移中心)

□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0:00~12:00
- 장소 : 海南省海口市秀英区南海大道 288, 号海口药谷生物医药创新 综合体 二楼 211室
- 참석자 :
 - 제주연구원(10명): 고태호 선임연구위원, 김현철/안경아/좌민석 연구위원, 이중화/이순국/강영준/조남운/오진호/강연실 부연구위원
 - 중국개혁발전연구원(9명): 吴翱(副主任, 国家技术转移海南中心), 柴文平(副主任, 国家技术转移海南中心), 谭思程(市场经理, 国家技术转移海南中心), 吕青(总经理, 海南自贸区沃佳实业有限公司), 黄福贤(副总经理, 海南汉普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于帆(副所长, 海南振华资产评估事务所), 谢孟博(顾问, 海南自贸区沃佳实业有限公司), 李正林(经理, 海南自贸区沃佳实业有限公司), 张晓东(高级经理, 国家技术转移海南中心)

□ 주요 연수 내용

- (국가기술이전하이난센터) 국가기술이전 하이난 센터(이하 “하이난 센터”)는 과학기술부와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과학기술부 토치 센터와 하이난성 인민정부의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임
- 중앙기업인 중국종합기술그룹이 운영하는 전국 12번째 국가 기술이전센터이자 중앙기업이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기술이전 플랫폼으로 2022년 2월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됨



출처: <https://www.hainan-tt.com/about>

○ (질의응답)

- [중앙정부의 하이난에 대한 기대] 글로벌경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무역 중단이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하이난에 대해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제적인 개혁개방의 창구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함
- [하이난 중점 육성산업] 심해경제, 종자산업, 우주산업, 열대특색 고효율 농업, 현대서비스업 등을 하이난의 중점산업으로 선정함
 - ☞ (심해경제) 심해에서의 채굴 관련 기술이나 장비, 설비 등 기술 개발 필요에 따라 심해 관련 제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 중임
 - ☞ (종자산업) 하이난은 중국의 핵심 종자 육성기지로 중국 종자산업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최근 종자산업 선두기업들이 하이난에 유입되며 빠르게 발전 중임
 - 쑤야 지역에 ‘난판 실리콘밸리’를 건설하여 종자산업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 ☞ (우주산업) 중국원창위성발사장이 하이난성 원창시 룽루진에 위치하며, 시창 위성발사센터 관할의 중국 최초의 개방형 임해우주발사기지임
 - 중국의 4개 우주발사장 중 하나로, 주로 지구 동시 궤도 위성, 극궤도 위성, 우주 정거장 등 우주선의 발사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창우주청 설립을 준비 중임
 - 2019년 10월 원창시에 원창 국제항공우주 도시(Wenchang International Aerospace City)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도시에 입주한 1,600여 개 기업 중 205개사(12.6%)가 우주항공 분야에 해당함¹⁾
 -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이전하이난센터에서는 원창우주발사장과 관련된 기술을 유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열대 특색 고효율 농업) 하이난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열대지방에 위치하여 열대기후의 특색을 지닌 고효율 농업을 강화하고, 열대자원에대 대한 경쟁적 우위에 기반하여 농업 발전(표준화, 특색화, 규모화, 브랜드화 등)을 추진 중임
 - 중국 내륙·아세안으로부터 신규 열대작물 품종 및 기술을 유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제주와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1) SPACERADAR(2023.07.02.), “원창 국제유주도시 빠르게 성장”...입주기업 13% 우주항공 관련.

- ☞ (현대서비스업) 관광업(항공, 면세, MICE 등), 항공, 금융 등과 연계하여 현대 서비스업을 추진 중이며, 하이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부상함
 - 하이난에서는 교육, 의료(한의학 포함), 전문서비스 분야 모두 내륙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 한의학 관련 선진 가공기술, 브랜드 홍보·마케팅 등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수산업] 하이난은 수산물 소비가 많은 편으로 하이난 내 공급 부족 및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제주지역과의 수산물 무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 하이난에서는 해외에서 수산물을 수입해서 가공한 후 중국 내륙으로 판매 시 가공된 상품의 부가가치가 30% 이상일 경우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원물 수출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또는 사업 확장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 이는 수산물 외에도 농산물, 약재, 화장품, 연구개발 등 원부자재(연구설비도 포함)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됨
 - ☞ 또한, 현재 하이난에서는 진주양식을 통해 한국 및 일본의 기업들과 사업적으로 연계협력 중임
- [면세산업] 하이난은 섬 전체가 면세구역으로 지정되며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면세산업이 빠르게 성장함
 - ☞ 중국 내 하이난이 면세산업 규모가 가장 크고, 한국 브랜드도 다수 입점해 있으며, 특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 이에 하이난과 제주 면세점 간 지역 특화 브랜드(상품) 교환 입점 등 상호 교류·발전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제주·하이난 간 협력체계 구축] 제주와 하이난은 섬 경제, 대외개방 정책(국제자유도시, 자유무역항)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향후 산업 및 정책,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함
 - ☞ 국가기술이전하이난센터는 기술 이전(전파)를 통한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상호 간의 산업적인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 연계 및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다각화(하이난 지역 내 대학·기술이전센터·연구기

관-제주지역 내 대학·제주연구원·정부기관·기업)하여 장기적인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타]

- ☞ 중국은 규제혁신 제도인 ‘선행선식(先行先试)’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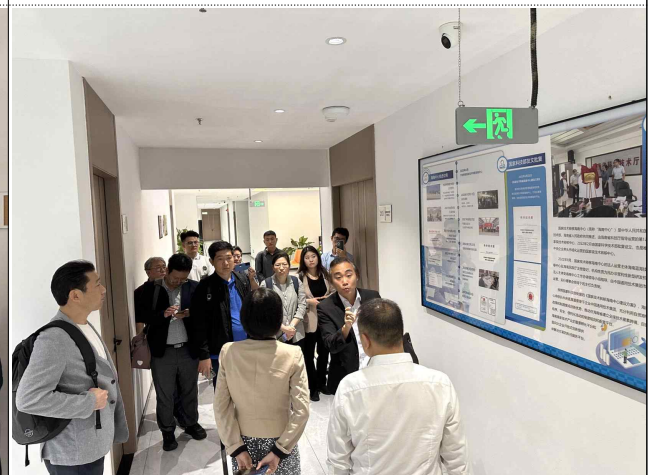
<국가과학기술이전센터 입구>



<센터 및 사업 소개>



<센터 및 사업 소개>



<센터 및 사업 소개>

<센터 및 사업 소개>



〈센터 및 사업 소개〉



〈센터 및 사업 소개〉



〈회의 모습〉



4 하이난성 역사기록박물관(海南省史志馆)

□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4:00~16:00

○ 장소 : 하이난성 역사기록박물관

□ 주요 연수 내용

- 하이난성 역사기록박물관은 하이난성의 지리와 역사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여 전시하고 있음
 - 하이난성 역사기록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하층은 하이난성의 역사 및 지리 관련 약 6만 권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지상 3개 층은 각 주제별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음
 - 1층 전시관에는 하이난성의 자연자원, 문화 및 역사,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2층 전시장은 '붉은 깃발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红旗不倒)'를 주제로 대혁명, 농업혁명, 항일전쟁과 해방 등 하이난성의 주요 역사에 대해 전시중임
 - 3층 전시관은 사회주의 건설, 경제특구, 국제관광섬 건설 등을 주제로 해방 이후 최근 하이난의 경험과 주요 성과에 대해 전시함





5 하이커우 분화구 지질공원

□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10:00~12:00
- 장소 : 레이충 하이커우 화산군 국가지질공원(雷琼海口火山群国家地质公园)

□ 주요 연수 내용

○ (하이커우 분화구 지질공원 소개)

-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스산진에 위치한 분화구 지질공원으로, 중국 레이충세계지질공원(China Leiqiong Global Geopark) 등으로도 알려져 있음. 중국 레이충세계지질공원은 하이커우 분화구 지질공원을 기반으로 개발된 세계적 수준의 관광 브랜드로, 이 공원은 하이난성 10대 명승지이자, 국가 4A 등급의 관광지이며 국가 지질공원 중 하나임
- 하이커우 분화구 지질공원은 약 1만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제4기 화산군으로, 40개의 화산구와 30개 이상의 용암 터널이 있으며 ‘천연 화산 박물관’으로 일컬어짐. 다양한 화산 지형과 문화, 열대의 생태경관을 살펴볼 수 있음



6 하이난성박물관

□ 개요

○ 일시 : 2023년 10월 16일(목) 14:0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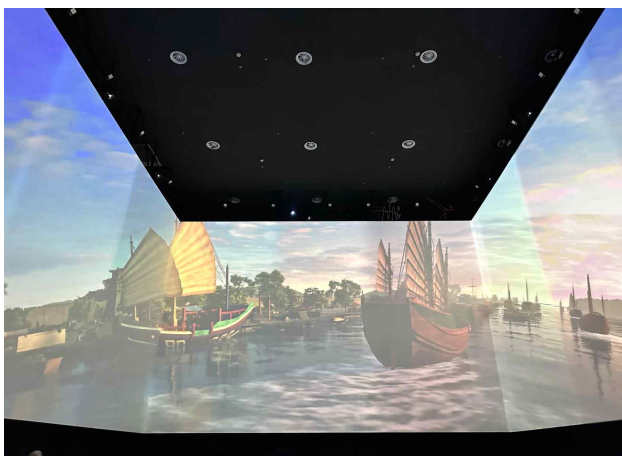
○ 장소 : 하이난성박물관

□ 주요 연수 내용

○ 하이난성 박물관은 하이커우 시내의 성 정부 근처에 위치한 종합박물관이자 국가1급 박물관임

- 하이난성 박물관은 1984년에 건설되었으며, 귀싱거리의 하이난문화공원으로 이전 후 2008년에 공식적으로 재개장함. 전체 면적이 약 40,000 평방미터로 대규모의 전시 공간을 보유함

○ 박물관 내에는 하이난의 역사,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 소장 유물에 대해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1 산업단지간 협력을 통한 기업 공동 유치 모색

□ 장동신구디지털창조밸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협력 방안 모색

- 장동신구디지털창조밸리(이하 '장동신구')는 하이난자유무역항의 11개 중점단지 중 하나로 총 부지면적은 약 298km² 중 비즈니스 중심단지, 임공산업단지, 숙박 및 주거 단지 등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기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60여개 중국기업 중 38개 기업이 장동신구에 입주한 상황임
 - 주요 업종으로 에너지, 기초설비, 금융, ICT, 현대서비스업, 비즈니스 관광, 금융 등 서비스 무역이 중심인 상황임
 - 이러한 업종의 기업 유치를 위해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여 기업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산업단지와와의 교류와 협력 역시 제안함
 - 규모적인 측면의 차이를 떠나,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이를 위한 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과 사람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은 제주의 지역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주지역 산업단지와 하이난의 장동신구의 협력을 통해 공동 기업 유치, 제도 개선 및 관련 지원 정책 마련 등을 모색할 수 있음

2 국제 협력 강화로 신산업 및 제도 개선 추진

□ 블루 이코노미 관련 공동 협력 추진

- 중국개혁발전연구원은 해양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블루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3가지 활동을 계획 중이며, 동 활동에 참여하여 제주지역의 국제화 및 공동 협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블루 이코노미 협력 양성반(인재 교육) 추진
 - RCEP 체계하에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 내 전문가와 소통 및 교육 기회 마련

- 참여비용은 중개원에서 지불 예정이며, '24.1월에 3기 양성반 추진 계획 중 (매년 추진)
- 청년 영리더 포럼 추진('24.1월 오프라인 행사 추진 예정)
- 블루 이코노미 경제협력 포럼 개최 예정이나, 세부일정은 미확정임

□ 제주국제자유도시, 하이난자유무역항 법적 지위와 체계 비교 연구

- 하이난자유무역항법은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법률은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정권의 변동에 영향이 낮아, 정책적 지속성이 높은 체계가 구축됨
- 하이난자유무역항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국가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으로 기본적인 구상과 발전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하이난성이 일치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음
- 하이난자유무역항의 법적 체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법적 체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책적 지속성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도혁신을 통한 선진형 비즈니스 환경 조성 정책 연구

- 하이난에서 수입재화의 재가공 시 부가가치가 30% 이상일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되는 혜택을 추진 중임
- 식품 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지원제도임
- 하이난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중국 내 기업이 아세안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대표처를 하이난으로 유치하고자 하며, 아세안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 하이난에 대표처를 수립하도록 유치하고 있음
- 이를 2개의 본부 기지라고 하는데, 하이난은 결국 중국 남부에서 높은 개방 정책과 기업과 인재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자유무역항으로서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하이난성이 중국 내 31개 성시 중 하나의 지역으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에 역할하기 위한 제도적인 특혜 등은 제주지역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임
- 또한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제주지역에 있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의 특수성과 기능성은 반드시 모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연구는 추진되어야 함

3 기술 협력 및 사업 다각화 모색

□ 공동 연구를 통한 정책연구 진행

- 하이난의 국가과학기술이전센터는 제주와 하이난은 섬 경제, 대외개방 정책 (국제자유도시, 자유무역항)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향후 산업 및 정책,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함
- 하이난의 국가과학기술이전센터는 심해경제, 종자산업, 연대 특색 고효율 농업, 현대서비스업, 수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개발, 기술이전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섬 경제라는 유사성 속에 종자산업, 심해경제, 농업, 심해양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기술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의 기회가 존재함
- 공동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하이난 국가과학기술이전센터, 하이난대학교, 제주연구원, 기타 제주지역 내 사업 추진 기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적 정책 연구를 우선 추진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